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선한 목자 되신(442장) 오 신실하신 주(447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57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진우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전도서 3:1-11	인 도 자
설 교	때를 따라 사는 삶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7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선교사역	
양육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제2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세어보면 총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28가지 인생의 시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14가지이고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내용이 14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는 14가지의 아주 좋은 일들, 또 14가지의 아주 슬픈 일들이 서로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쁨만 있고 슬픔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슬픔만 있고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를 반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균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고난이 많아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보일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기쁨과 슬픔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인생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누린 형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기쁨만 있는 인생, 긍정적인 것만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난만 있는 인생, 슬픔만 있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또한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인생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조적인 여러 가지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섭리로 여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때를 즐길 줄 알고 슬픔의 때를 견딜 줄 아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 영적 근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형통함에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시편 23편 3~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천지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홀로 고독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계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속에 숨어계신 아니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억매이지도 않는 것이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 많은 때 물론 좋은 시간들만이 아니라 나빴던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 삶이 시시각각 변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근시안을 가진 우리 인생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내 삶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불안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최고의 날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의 축복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복음의 참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진리를 사모합시다.
2. 송구영신 친교모임은 오늘 오후 7시에 송구영신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 12월 재정보고와 적립된 선교비 사용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11월까지 적립된 선교구제비는 $2,406.00입니다.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80.00	
성탄헌금:	$170.00	
특별헌금:	$10.00	**합 계: $260.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믿음과 헌신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